

사이버보증시장의 리더

디지털 건설환경의 뉴-프론티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인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PLANT & MECHANICAL CONTRACTORS FINANCIAL COOPERATIVE OF KOREA
www.seolbi.com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조합원과 하나되는 설비조합 추구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찬재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대한설비건설공
제조합 제20차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
쁘게 생각하며,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회에 참
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건설생산체제 개편에 따른 정책변
화와 공공건설 투자의 감소, 금리인상, 그리고 8. 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우리 설비업계
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사와 조합 임·직원 모
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그다지 좋지않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직원들은 조합원과 조합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하였습니다.

창설당시 조합원사는 2,960개사이었으나, 2005. 9월말
현재 4,925개사로 1,965개사가 (66%) 증가하였으며, 자본
금도 1,500억원에서 1,753억원이 증가한 3,253억원으로
116% 성장하였고, 좌당 지분액도 창설당시 82만 4천원보다
8만 4천원이 많은 90만 8천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대의원님 여러분과 조합원들께서 협조하여 주
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합 운영에 내실을 기하므로써 조합 재무구조
의 건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합규정을 개정하여 신용거래 조합원
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등 개인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않을 경우 보증수수료 50% 및 융자금 이자 20%를 할증하고
있었으나, 조합원사의 편익을 위하여 동 입보제도를 금년 7
월 1일부터 폐지하여 신용거래 조합원사의 연대보증 부담
을 없애고 비용을 대폭 경감하였으며, 또한, 2006년 7월 1일
전면신용거래를 대비하여 조합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용거래조합원들의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는 32.8%에서 23%까지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
기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합원사의 수수료 부담은 년
간 약 30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오늘 총회에 상정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국내의 경제의 불
확실성, 건설경기 성장둔화 등 여러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조합원의 업무지원을 위한 영
업활동 예산을 반영하였고, 전면신용거래에 따른 조합재무
구조 건전성 확보로 내실경영 기조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
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익은 164억원으로, 영업수익은 98억원, 영업
외수익은 6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비용은 148억원으로, 인
건비 58억원, 경비 52억원, 기타 법정충당금 및 예비비 등을
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수익에서 비용을 공
제한 세전이익을 16억원으로 하고, 법인세를 제외한 당기
순이익을 12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운영위
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상정되었사오니 대의원
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
라며,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내빈과 대의원
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사랑 받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해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종학

오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0차 총회를 맞이하여 정삼정 건교부 건설지원팀장님, 정승일 협회 명예회장님과 홍평우 명예회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찬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주택건설경기 위축으로 많은 물량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건설산업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를 지배하던 의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한편,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수주를 자제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내실 있는 경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조합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사의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와 편익을 위해 신용거래 조합원사의 연대보증 부담을 없애고, 비용을 대폭 경감하는 등

건설하고 알찬 경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조합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거래 전면 실시 시기를 연장하고,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조합원들께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합은 서비스 혁신을 통한 조합원 중심의 업무 수행체제를 확립, 첨단화된 정보화로 향후 예상되는 건설 및 보증관련 정책변화를 예측하여 설비건설업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용평가업무 능력배양 및 전문인력 육성교육, 전자조합의 구현을 위한 인터넷 영업업무 확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로 내실경영 기초 확립에 역점을 두고,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조합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업무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경영목표로 설정한 “조합원과 하나되는 조합”이 되고, 조합원으로부터 사랑 받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총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대의원 여러분의 사업이 일익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합은 서비스 혁신을 통한 조합원 중심의 업무 수행체제를 확립, 첨단화된 정보화로 향후 예상되는 건설 및 보증관련 정책변화를 예측하여 설비건설업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0차(정기)총회 개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은 지난 10월 26일 설비건설협회 대회회의실에서 건설교통부 정삼정 건설지원팀장,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회장, 정승일, 홍평우 명예회장등 전국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총회(정기)를 개최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조합원과 하나되는 조합」를 목표로 하여 △서비스 혁신을 통한 조합원 만족실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전자조합 구현을 통해 대 조합원사 서비스 능력향상과 건축재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천명하면서 2006년도 예산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건설경기 성장둔화 등의 경영여건을 감안한 건축편성으로, 164억원의 수익을 목표로 세전이익은 17억원을 올릴 것을 예상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이찬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된 어려운 국내의 건설환경 속에서도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창립대비 자본금 116% 증액, 조합원사 66%가 증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2006년부터는 보증수수료를 최고 32.8% 인하하여, 조합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조합원들의 보증수수료 부담경감을 추진 중이다」라면서 「2006년 역시 국내외 건설경제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건축경영을, 외부적으로는 영업활동 창출 및 전면 신용거래를 통한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로 내실경영의 기초

를 삼겠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우리 조합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사의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와 편익을 위해 신용거래 조합원사의 연대보증 부담을 없애고, 비용을 대폭 경감하는 등 건설하고 알찬 경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조합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거래 전면 실시 시기를 연장하고,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조합원들께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종학 회장은 「앞으로도 조합은 서비스 혁신을 통한 조합원 중심의 업무 수행체제를 확립, 첨단화된 정보화로 향후 예상되는 건설 및 보증관련 정책변화를 예측하여 설비건설업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업무 능력배양 및 전문인력 육성교육, 전자조합의 구현을 위한 인터넷 영업업무 확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로 내실경영 기초 확립에 역점을 두고,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제3대 설비조합 운영위원으로서 조합발전에 공헌한 정승일 전운영위원장, 신길우, 박원양, 김광한 전운영위원에게 공로패 수여를 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신용분석 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광주호남지점 박 현 우

지점 일선에서 근무한지가 벌써 10년째로 입사부터 지금까지 회계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 동안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오면서 무수히 받아놓은 재무자료들을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바른 자료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히 컴퓨터에 의한 평가등급을 산출을 위한 구비서류 정도로 이해하면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 교육을 좋은 기회라 여겼다.

물론 은행권에 다니면서 회계를 전공한 사람들과의 경쟁 부분에 대해서는 입소 전 두려움과 긴장감이 밀려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기대와 긴장을 가지고 입소한 교육은 은행실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이었으며, 처음 접해보는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접하게 되었다. 어떤 단어들은 나 혼자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에 수업 중에 질문도 하지 못하고, 머리 굴리고 나름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책을 찾아 확인하기도 하고, 직접 교수님을 찾아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의 일주일엔 정신없이 흘러갔다.

첫 시험인 '원가회계'를 치르고 나서야 약간의 이해와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회계에 대해서 완벽히 알지 못하더라도 어떤 원리만 천천히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방법이랄까.....

뭘 하여튼 엉켜있던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가면서 내 자신도 어떤 성과에 대한 만족감이 몰려오는 듯 했다. 원가회계를 잘 치르고 보니 다른 과목도 자신이 생겼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회계기준, 특수회계, 결합회계, 세무회계 등 많은 과목들을 접하게 되고, 숨 쉴 틈 없이 진행되는 수업과 밀려오는 시험에 대한 심적 가중감, 수업 중에 언급되는 많은 전문용어 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잘 해 낼 수 있을까?'를 되뇌이며 연수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

아와서 그렇게도 좋아하던 TV의 유혹도 뿌리치고 책상 앞에 앉아 책을 내려다보고 있는 내 모습,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나름대로 대견함과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회계원리에 대한 이해과목은 끝나고 본격적인 실무적용에 들어갔다. 이쯤 되어가니 그 동안 그렇게 생소하게 들려왔던 단원들이 하나, 둘 대견스럽게(?)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듯 맞물려 가는 것을 느낄 때에는 점점 적응해 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 과정인 "신용평가종합사례분석"은 우리 조합에서도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힘들었던 교육과정을 거의 마쳐갈 무렵, 주위를 돌아보니 어느덧 여러 은행직원들과의 돈독한 유대관계, 두 달 동안 늘 함께 같이 해준 동료 등과 아쉬움을 준비하여할 시기가 되었다.

참으로 값진 두 달간의 여정이었음을 느끼고 앞으로도 우리 조합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나에게까지 이런 교육을 받게 해준 조합에 감사드린다.

내가 교육받는 중 지점에서 내 뒤편까지 부담해서 근무하고 있는 이춘복 지점장님 이하 동료분들께 무엇보다도 고마움을 느끼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내 자신에 대한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쌓은 만큼 지점으로의 복귀 후에도 실무에 대한 자신감으로 근무해 보리라 다짐해본다.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06년 조합 전면신용거래 시행을 앞두고, 신용평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고객에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고자 매년 '한국금융연수원'에 위탁하여 신용분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광주호남지점 박현우 대리는 이번 교육기수 중 최상급의 점수로 수료하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국립서울산업대학원 기계설비 최고전문가 과정(제9기) 입학 안내

1. 모집학과

모 집 과 정	모 집 인 원	비 고
기계설비 최고전문가 과정 (9기)	30명 예정 (선착순 마감 예정)	주 2회 강의개최 화, 목(오후 7시 ~ 오후 10시)
교육기간 : 2006년 3월 ~ 2007년 2월(2학기 강의로서 학기당 15주 강의)		

2. 지원자격

- 가. 대한설비건설협회 산하 회원사 임직원으로 직위가 소장급 이상인 자
- 나. 상기 과정에 관심이 지대한 산업체 임직원으로 직위가 차장급 이상인 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본교 홈페이지(www.snut.ac.kr) / 2006학년도 기계설비 최고전문가 과정(제9기) 입학안내(입학원서 다운로드) 작성
기재 후 접수처(사진 포함)로 내교 접수

나. 접수기간 : 2006년 1월 2일(월) ~ 2006년 2월 18일(토), 선착순 마감으로 기간 변동 가능)

다. 접 수 처 : 서울산업대학교 기계설비센터(생산공학과관 3층 351호)

전화 : (02) 970-6310, 6943. HP : 011-9730-6310

4. 특전

- ① 무시험·무면접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주관 인정 건설기술자 등급 해당(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관련 자격증 취득
- ②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산업대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서 수여 및 해당 증명서 발급
- ③ 경기공업·서울산업대학교 총동문회 명부 수록 및 정회원 등록
- ④ 경기공업·서울산업대학교 설비동문회 정회원 등록

서울산업대학교 기계설비센터